東大新聞

發行人 李智冠
編輯人 宋在雲
印刷人 李揆行
主幹 林英正
編輯局長 申寬浩
編輯長 盧建煥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우편번호 100—715
서울시 中區筆洞3街26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경주캠퍼스
우편번호 780—714
경북 경주시석장동707
전화교환 2—0131~6
본사직통 41—4132
每週 水曜日 發行

學自鬪 지난9일 극적타결

8개항학칙 반영
교과과정 전면개편
교수회칙 민주적 개정
2처1실장 퇴진

"교수·학생이 주인되는 동국건설의 계기로"

"합의사항 성실이행" 3자공동조인

경주는 부총장직선·기획과 설치해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으로 2학기들어서만 본관점거농성 1백1일(지난8월31일 비상학생총회기준 1학기포함시 1백36일)만에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지난9일 오후2시 학자투8개항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합의문 조인식이 李智冠총장, 吳亨根(불교)교수회회장권한대행, 부총학생회장 이호영(국문4)君및 8월31일까지 교과과정 전면개편, 90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각 학과당 전공선택과목 3강좌씩 증설▲징계철회(유기정학자 4명은 학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 퇴학자 2명은 정상참작하여 처리)▲비서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은 임시열부를마친뒤보직사퇴▲교수회회장사퇴▲교수회 회칙 개정—보직교수는 보직기간 동안 회원권한유보, 단과대학장 선출권 보장 노력▲총장은 타결후 대총장회에서 그간의 과정에 대한 해명및 동국발전의 의지표명 등 8개사항이다.

이날 조인식에서는 宋在雲학생처장이 합의문을 낭독한후 尹鍾奕기획조정실장, 邢基枉교무처장, 宋학생처장, 尹寶普총무처장, 吳亨根교수회회장권한대행, 부총학생회장 이호영, 총학 총무부장 한상협(국문4)君, 문과대학생회장 김경일(국문4), 야간강좌학생회장 노병호(경제3), 신입문과대학생회장 이동규(철학3), 신입법과대학생회장 윤지훈(법3)君의 순으로 서명및 조인을 가졌다.

이어 李智冠총장이 확인 형식으로 결제를 했는데 이날 조인식에는 曺永祿문과대학장, 南宣祐공과대학장, 田浩鎬이부대학장, 睦槇培비서실장, 金泰俊(일문) 평교협 의장, 金鎔貞(철학), 李鍾燦(국문) 교수등이 참석했다.

이날오후1시30분에는 「총장공개해명을 위한 비상학생총회」가 5백여명의 학생앞에서 열려 가운데 본관앞에서 참가한 88학년도 학원자주화투쟁(이하 학자투)이 일단의 막을 내렸다.

이날총회에서 오후2시10분경 합의문에 조인을 끝낸 李총장은 공개해명을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교수 학생 직원이 하나되는 동국을위해 노력을경주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수회전회장 오국근(영문) 교수는 인사말을통해 『일신상의 사정으로 교수회의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本校의 발전과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전념해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총학생회장 이호영군은 이날 있었던 학생의사항을 발표했다.

또 학자투위원장 이승민(영문3 퇴학)군은 인사말을 통해 『투쟁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계를 인정한다』며 『그러나 투쟁선과들에서 제외된 제반학생복지문제, 등록금 동결문제에 대해서는 3자연석회의와 학칙소위원에서 발학중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후 2시40분경 문과대학생회임원장 이욱규(철학3)군이 총장답화문을 낭독한것을 끝으로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각등성장으로 돌아가 농성장을 정리했다.

한편 경주캠퍼스자치권쟁취와 등록금 동결을 위한 학원자주권 수호투쟁(이하 학자투)과 관련, 학생과를 제외한 전행정부서 젊거농성들이, 12일만인 지난9일 학교당국, 교수·학생대표의 합의로, 현안문제가 타결됐다.

지난달 28일 국문과와 고고미술사학과를 필두로 확산된 젊거·철야 농성에서 「등록금 동결」「기획조정실 설치」등을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지난 6일까지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지난6일 오후6시 대표교, 교수, 학생, 직원측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지난 8일엔 교수 학생 공청회를 통해 잠정적으로 합의한뒤 지난9일 최종적으로 합의서에 조인한것이다.

이에 따른 합의서 조인식은 지난 9일 閔丙天부총장을 비롯한 3처장들의 학교당국자와 총학생회장 김동선(철문3)군, 교수회대표 崔吉燮교수등의 합의서명이 교수·학생 4백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총장 학생대표의 참관▲등록금을 책정시 학생대표의 참관▲기획조정실설치는 독립채산제가 불가능해 우선 기획과만 설치한 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합의됨에따라 학생들은 부총장실을 제외한 모든 산부실의 농성을 풀고 대표들만 부총장실에서 축소점거농성을 계속하기로함으로써 학자투는 일단락됐다.

◇합의문에 조인 학자투8개항의 조속한 이행에 대한 합의문조인식이 지난9일 오후2시 학교당국, 교수회,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실에서 있었다.

교수 11명 농성 풀어

13일만에 "교수회의결기구화"재천명

협학내분제의 조속한 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25일 각연구실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던 교수 11명은 농성13일만인 지난 8일농성을 풀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교권은 교수가 주체적인 책임과 함께 스스로지켜야 하며, 교수회는 평교수만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의결기구화가 되어야하며, 학생산별시 학처장회의 실에 대한 조속한 단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결정한도록 발관한교수회의 실상을 통감하며이에 책임을 느끼며 자연인으 국민교수에게, 철야농성이라는 비상수단을 사용했던사 과 관련, 활발토교수연구실 난임사건을 김대건실장의 배후조종에 의해서 행해지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와함께 ▲코치, 갈등, 제약제방▲선수식당운영개선▲복식, 레슬링, 빙상부등의 결주캠퍼스이전계획 즉각철회▲이춘장 간사직진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4일째 농성중이다.

이들은 『現 김대건실장이 지난7월 부임한이래 체육발전은 도외시한채 코치, 갈등들에게 일방적으로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레슬링, 복싱부등에 지급된 점부지 원비를 유용하는 등 낙후된 숙소개선도 전혀 지않고있다는 주장했다.

또한 황교수사건당시 김실장이 체육교육과 농성학생들에게 1백27만원의 식비를 지급하겠음으로 미루어 배후조종했음이 틀림없다는 주장도함께하고있다.

한편 이들은 5개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각종 훈련에 불참하는등 무기한 농성에 임할것임을 밝혔다.

"필화사주 체육실장 퇴진"

체육부선수 1백명 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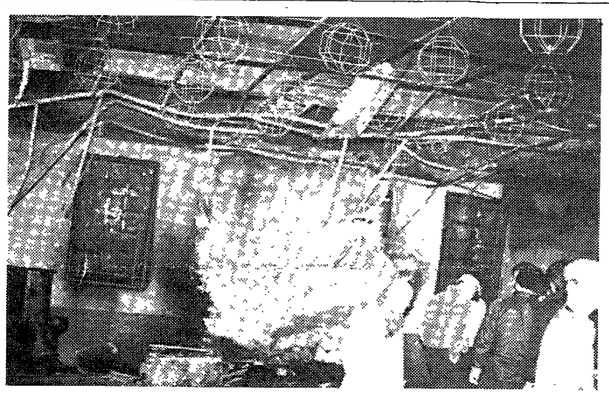
처우개선도 주장

체육부 선수 1백여명이 지난 7일부터 「체육실장 金昊建(체교) 교수퇴진」을 요구하며 체육부 각 사무실을 점거한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체육부선수들은 지난9월 本紙에 실린 「국시, 반공인지 스포츠인지…」란 원고와 관련, 활발토교수연구실 난임사건을 김대건실장의 배후조종에 의해서 행해지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와함께 ▲후원 숙소개선도 전혀 지않고있다는 주장했다.

또한 황교수사건당시 김실장이 체육교육과 농성학생들에게 1백27만원의 식비를 지급하겠음으로 미루어 배후조종했음이 틀림없다는 주장도함께하고있다.

한편 이들은 5개요구조건이 관철될때까지 각종 훈련에 불참하는등 무기한 농성에 임할것임을 밝혔다.



경주정각원 모두 불타

지난8일 방화혐의질어 큰파문

경주캠퍼스도서관 4층 정각원에서지난8일낮12시30분경 화재가 발생해 정각원내부 1층 전소를 시키뒤1시간만에 진화됐다.

이화재로 벌달내 불상, 제단상, 제기, 탱화 2점, 피아노등이 전소, 1천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당시 도서관에서 공부중이던 학생들과 법당내에있던 재석스님은 화재경보 벨이 울린 후 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화재는 원내의방석, 카페트등의 불연재까지 태우며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9일 오후1시 경북도경소속 화재감식반의 조사에 따르면 누전 전열기구 오용 충돌등에 의한 사고는 아니며 이는 전기배선이 정상적이고 원내 전열기구가 없는점 등으로미루어 누군가의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학교당국과 학생, 불교도 연합회등에서는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 별도로 화재원인및 방화자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펴고 있으나 학생 방화설, 학자투 와해를 목적으로한 방화라는 설등이 엇갈리고 있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하고있다.

吳교수회장 사퇴

권한대행에 吳亨根교수

本校 전체교수회 吳國根(영문) 회장이 지난 8일 학자투와 관련, 교수회 총회장직을 사퇴했다.

吳교수는 지난 8월7일, 초대총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교수회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퇴진운동가 계속됨에 따라 재임 3개월여만에 회장직을 사퇴하게 된 것으로, 이에따라 9일부터 吳亨根(불교)교수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한편, 吳전임회장의 사퇴 승인과 신임회장선출은 吳회장이 서울및 경주캠퍼스 교수회 정기총회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號外

대학은 문화창조의 요람이며 문화는 역사적 현상의 직시속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화를 전승하는것도 재창조적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가치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재적 사실을 폭넓게 수용하여 보다 높은 정신문화로 계승발전 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든 대학은 민주화, 자주화의 커다란 전환점에 서서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학의 민주화, 자주화는 대학내의 모든 인격적 개체가 자주성, 민주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민주적 체질개선만이 대학문화 창달을 조기달성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대학인 모두가 대학의 주체로서 동심협력할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동국인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변이에 따르는 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격동적 시련을 겪었읍니다. 그러나 이성과 인내로 결속된 투쟁정신이 근간이 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읍니다.

이제 학원자율화를 위한 동국인 여러분의 열망이 성숙하여 동국의 일보 전진하는 이정표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本人은 건학주체를 대표하여 동국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건학이념을 현창하고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전동국인의 기대에는 아직까지 머물지 못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6월이래 학생여러분들의 대학 발전에 대한 자주적이고도 민주적인 열망에 의하여 우리는 대학사에 유례를 보기 어려운 획기적인 8개항을 합의하였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의 실천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만 2학기 들어서 학내의 여건상 8개항의 일부분이 실천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학생들이 다시 이의 실천을 위한 결의표명과 농성등 고생을 겪게 되었읍니다.

학교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학생 여러분들의 열망을 즉시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장시간 어려움과 고통을 갖게한데 대해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8개항은 물론 이번 새로이 학생여러분들과 합의한 사항중 학교당국으로서 해야할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는 성실하고도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이에 밝히는 바입니다.

학생여러분!

本人은 동국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누구보다도 더 뜨겁고 깊음을 인식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지성과 양식이 뛰어나다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동국발전을 위한 이 시점을 본인은 전환기, 화해의 시기로 생각하여 대승적 입장에서의 화합을 주창합니다.

여러분!

계절은 얼어오는 겨울이지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을 맞는 생각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학교발전은 물론 개인적인 성장에도 더욱 노력합시다. 다시 밝히거니와 총장으로 그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아픔과 고뇌에 대하여 거듭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동국인여러분!

우리 대학교는 불교의 지혜, 자비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대학입니다. 지혜는 이성적 논리를 지배하는 상호이해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 두가지가 하나로 모아져서 불퇴전의 용기를 가질 때 동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동안의 농성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여러분에게 도약하는 동국대학교, 민주화 자주화된 동국대학교, 교수·학생·직원이 동심, 동참하는 동국대학교,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면모를 보상으로 드릴 것을 기약하며 이글을 마칩니다.

1988년12월9일

동국대학교 총장

한국자수협회 창립 136명

자수예술의 발전 기대

◇그때 우리는 자수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